천주교의정부주보
DIOCESE OF UIJEONGBU

2021년 8월 1일
나해 · 제920호

• **발행인** 이기헌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연중 제18주일

입당송 시편 70(69),2.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탈출 16,2-4.12-15

화답송 시편 78(77),3과 4ㄱㄹ.23-24.25와 54(◉ 24ㄴ 참조)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에페 4,17.20-24

복음 환호송 마태 4,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요한 6,24-35

영성체송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순교 사적지

서짓골 성지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438-3

관할
대전교구 / 041-836-9625

병인년(1866년) 안토니오 다블뤼 주교, 루카 위앵 신부와 베드로 오매트르 신부, 장주기 요셉과 황석두 루카는 갈매못에서 참수된 이후, 그 시신이 모래자갈 속에 방치되었다. 두 달 뒤, 황석두 성인의 시신은 가족의 손에 수습되어 삽티에 안장되었다.

그 뒤 나머지 순교자 4위의 시신은 서짓골에 살던 신자들에 의해 이곳에 묻혔다.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시신을 매장했던 서짓골 신자들은 몇 달 후 체포되어 서울에서 처형되었다.

그 이후 순교자들의 무덤은 방치되었는데, 16년 뒤인 1882년 살아남은 신자들이 그 유해를 발굴하여 수습하였다. 이때 수습된 순교자 유해는 일본 나가사키로 옮겨져 오우라 성당에 12년 동안 모셔졌다. 1894년 서울로 옮겨진 유해는 용산 신학교를 거쳐 1900년 명동대성당에 모셔졌다가 1967년 절두산에 안장되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에페 4,20)

라병국 아우구스티노 신부
병원사목위원회 담당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에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기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지요. 수없이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답을 얻고자 했지만, 불안과 탄식이 더 큽니다. 사실, 그동안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 말씀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했던 기도가 참 부끄럽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곧 만나만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달콤합니다. 당장 허기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다시 배고프고 또 다른 만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의 이 상황을 빨리 끝나게 해 달라고만 졸랐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줄 빵을 달라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배를 타고 쫓아가면서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던 군중의 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이리 힘들다면 차라리 당신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하는 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여러 번 되새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23-24).
지금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이기에, 영과 마음의 새로움이 더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짐작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신 게 아니라 계실 곳에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말입니다.

군중의 시선에 예수님은 모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중개했던 인간 모세 말입니다.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듯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가락 끝이 가리켰던 분과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중개했던 분은 만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새로운 만나이며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할 생명의 빵이시라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주십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해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는 당신을 잊거나 못 알아보고 죽게 되었다며 소리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고물을 베고 잠만 자고 계시는 분으로 당신을 오해할까 봐 우리네 마음을 흔들어 주십니다. “제발, 오병이어(五餠二魚)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뻥튀기 장사꾼으로만 보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은 단지 죽음 이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살이에서 축복과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혹독한 고난을 가벼이 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치고 불안한 이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영과 마음의 새로움’(에페 4,23 참조)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선교와 사목 영성

교회 안에서의 일치

복음 선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제들의 복음 선교 활동이 주교를 포함한 다른 성직자는 물론 모든 형제자매와 일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사제품을 받은 후 순교하기 전까지 페레올 주교에게 여러 차례 서한을 보냈다. 그중 옥중에서 보낸 서한을 보면, 그가 페레올 주교를 얼마나 극진히 공경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를 "지극히 사랑하올 저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적었다.

"정신적으로 주교님의 발아래 엎드려 지극히 사랑하올 저의 아버지이시며 지극히 공경하올 저의 주교님께 마지막으로 저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양업 신부도 페레올 주교에게 각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선 귀국 후 페레올 주교를 가장 먼저 찾아가 인사드렸고, 그다음으로 교우촌을 순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55년 조선의 새 교구장으로 임명된 베르뇌 주교의 부임을 매우 기뻐하며 이 소식을 스승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착하신 목자 갑사 명의의 베르뇌 장 주교님을 영접하였습니다. […] 주교님을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마침내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최양업 신부가 베르뇌 주교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1842년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온 다음에도 스승 신부들에게 지속적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스승 신부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스승 신부들도 그들에게 정성 어린 답서를 보내왔다. 이렇게 박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의 젊은 사제는 교회와 일치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가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은 물론 중국에도 성직자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두 사제는 장상 주교와 사제들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일치하였고,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교와 사목 활동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을 기울여 나갈 수 있었다.

참조

조규식,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선교와 사목 영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탄생 200주년 희년살이 심포지엄, 2021.

의정부교구 교회사 연구소

돌고 도는 은총의 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신앙생활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애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주일학교 교사 시절을 떠올려보면, 매주 교리수업과 회합을 하느라 몸도 힘들고 마음 쓸 일도 많았지만 소진될 만하면 또 필요한 만큼 에너지가 생겨나곤 했다. 교리교사를 그만두면서부턴 그전처럼 바쁘게 성당에 다닐 일이 없고 게다가 코로나 이후론 주로 비대면 미사에 참례한다. 신앙생활에 쏟는 시간이나 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겨우 그 정도의 에너지를 마련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다.

> 이상한 건, 그러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열정적이 된다는 거다. 매일 성무일도와 묵주기도를 하고 영성체와 고해성사를 하러 달려가면서도 힘든 줄 모른다. 그럴 때 가장 두려운 건 내 마음이 언제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지 모른다는 점이다. 기도를 멀리하고 영성체의 갈망이 사라지게 되면 몸은 편할지 모르나 속은 초조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오르락내리락'의 알고리즘을 풀고 싶었다. 내 안에 기도할 힘이 생겨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고 싶었다. 간절히 바라는 뭔가가 생기면... 절박하게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지만 절실한 마음이 그대로 기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별 바람 없이도 열성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걸 체험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롯이 내 의지로 기도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총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 최근 가까운 친구로부터, 나도 모르고 지나칠 뻔한 친정아버지의 축일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이의 부모를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의 근력으로 더 많은 기도를 붙잡으면서 다시금 느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 안에서 살아왔는지 말이다. 비단 나를 특정하여 바치는 기도뿐만이 아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바쳐진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번번이 나를 살렸다. 사소한 절망과 우울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를 건져 올려 하느님을 바라보게 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렵다.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단 쉽다. 타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에 다소 뭉뚱그린 말로도 기도할 수 있고 쓸데없는 자책이나 후회같이 딴 길로 샐 일도 없다. 내 안의 힘이 바닥난 나머지 기도와 선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틈틈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내 기도로 인하여 누군가 다시금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젠가의 나도 그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돌고 도는 은총의 힘에 기대어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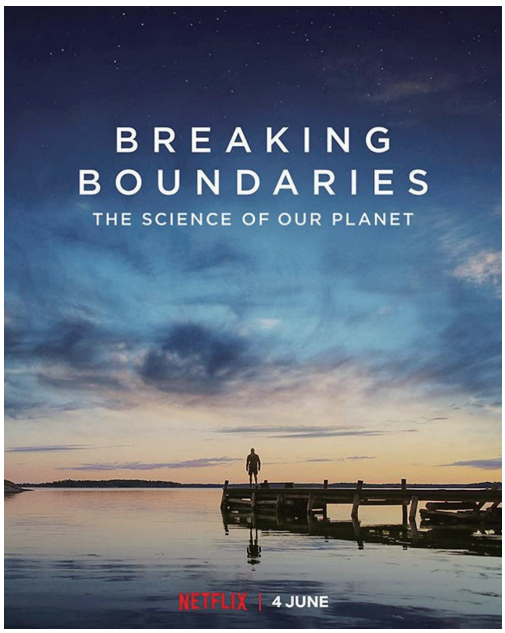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함께 알아가는 생태신학 14

브레이킹 바운더리: 지구의 과학

Breaking Boundaries: The Science of Our Planet



지난 회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생태신학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잠시 쉬어 가는 의미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상영된 "브레이킹 바운더리: 지구의 과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자연 다큐멘터리 거장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과 스웨덴의 과학자 요한 록스트룀이 지구의 환경을 진단하고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 내기 위해 변화를 호소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요한 록스트룀은 지구 환경의 안정 상태를 결정짓는 아홉 가지 지표, 곧 기후, 삼림, 생물다양성, 담수, 영양분(질소/인)의 순환, 바다의 산성화, 신물질, 공기오염, 오존층이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고 안전지대 내에 있어야 생명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지표 중 오존층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이미 한계선을 지나 위험지대에 있거나 빠르게 위험지대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 안전지대에 있는지 위험지대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지표들이 계속해서 위험지대에 있으면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중병이 너무 늦게 발견된 경우, 의사가 수술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요한 록스트룀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모든 지표가 다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인류의 삶과 모든 논의의 중심은 지구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여름에 더위를 잊기 위하여 공포영화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영화가 아니라 점점 더워지면서 안정을 잃어가는 지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경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태 질서가 무너진 불안정한 지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모두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을 막을 기회의 창이 좁다랗게 열려 있습니다. 그 창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다큐멘터리 영화 "브레이킹 바운더리: 지구의 과학"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생태신학은 자연세계를 하느님과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학 연구의 중심 테마로 삼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스템과 신앙생활 안에서도 지구 환경이 주요 주제이자 식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에 관한 뉴스가 어김없이 들리는 올여름을 보내면서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OFM Conv.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 탈(脫)시설 시대와 중증발달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시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그런 시설을 없애고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함께 생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탈(脫)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개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취지이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종류가 여럿이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추진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를 지닌 지체장애인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도 다른 바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치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에 대한 도움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인 의사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문제라는 틀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곤 합니다.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패럴림픽(Paralympic)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s)은 구분되어서 운영되지요. 지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다름이 없어서 본인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지적 수준이 어린 아기 또는 치매 노인 같아서 혼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달라야 합니다. 그중 거주 서비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거주 시설에 사는 이들의 80% 가까이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시설폐쇄의 당위성을 다룰 때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그들의 인권이 올바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 특성에 맞게 제대로 구조화된 거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조이빌리지"는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탈시설 정책이 한창 이야기되던 2019년 5월, 법인 소유의 기존 건물에 공적 지원 없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실비 거주 시설로 증축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년 넘게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이곳을 매개 삼아 장애인과 직원, 봉사자, 지역주민, 장애인 가족들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일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이빌리지가 추구하는 거주 시설의 모습이 고통을 겪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성향에 맞게 잘 구조화된 '거주와 케어'복합 형식의 소규모 공간이 더 많이 생겨서 장애인들도, 그 가족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010-3915-9018 / **후원** 농협 204062-55-001140 /우리 1006-801-236074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우리 교구 사회사목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은유들 (2) - 항해

음악 이야기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생활지도

인생을 표현하는 중요한 은유 중 하나로 '항해'를 들고 싶습니다. 큰 포부를 안고 용기 있게 먼바다로 떠난 배가 온갖 난관을 겪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항해는 인생을 손에 잡힐 듯 생생히 그려내는 은유입니다. 얼마나 멀리 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일과 위기가 있었는지는 각각의 배마다 다르겠지만, 이를 억지로 비교하고 우열을 매기려는 유혹을 절제할 수 있다면, 모든 항해는 의미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우여곡절의 세월을 흔적으로 남기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항해는, 난관과 실패로 가득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한 사람의 좋은 인생과 닮아있습니다. 인생을 항해로 바라보는 은유의 시선은 인간의 삶을 한 순간의 성패로 보거나 파편적 순간들의 단순한 집적으로 보는 대신, 그 안에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풍요로운 이야기로 보는 관점과 통합니다. 인생을 긴 항해로 그려내는 은유의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폭넓고 지속적으로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반대로, 오늘날 많은 이가 인생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애쓰면서도 우울증과 소진(burnout), 허무감에 시달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긴 항해로 바라보지 못하는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독일의 비판이론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하르트무트 로자 Hartmut Rosa가 『소외와 가속』 (앨피, 2020)에서 내리는 진단은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자에 의하면, 가속화에 따른 양적 시간 개념에 사로잡히고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하며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항해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항해사나, 적어도 공동 운명을 느끼며 동반하는 승객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앞에서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 파도를 타는 '서퍼'일 뿐입니다. 파도를 타다가 물속에 빠져 버릴 때는 실패자가 되고, 파도를 잘 탈 때는 성공한 사람이 되며, 가장 거센 파도를 타서 누구보다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최고의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이 솟구친다 해도 사실 먼바다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삶의 목적도, 의미 있는 이야기도, 실패와 역경을 통한 배움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공을 향한 욕망과 경쟁 논리, 인정투쟁과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하여 '파편화'되고 분열된 삶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 없는, 소박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항해'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교부(敎父)들은 교회를 방주라고 이해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길고 긴 항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항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멋진 대중음악 두 곡이 떠오릅니다. 블루스와 컨트리 기타의 명인 쳇 에킨슨의 아름다운 연주곡 'Sails'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팝송인 로드 스튜어트의 'Sailing'입니다. 이 멋진 곡들을 들으며 나의 인생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하는 '항해'를 생각해봅니다.

YOUTUBE로 보기

◀ 쳇 에킨슨(Chet Atkins) 'Sails'

로드 스튜어트(Rod Stewart) 'Sailing' ▶

교구장 동정

8월	3(화)	10시	교구청회의 – 교구청 회의실

교구 소식

제23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꿍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일시 8/27(금) 20시 ~ 8/29(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청소년사목국 육아휴직 대체 직원 모집(1명) *모집 연장

채용 내용 및 필요 서류 교구 홈페이지 참조

접수 8/3(화)까지 ※ 8/2(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문의 청소년사목국 031-850-1456,8 youth@uca.or.kr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신입직원 모집

모집 분야 회계, 세무 업무

인원 ○ 명

자격 ERP 회계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우대

근무 시간 월~금 (09시~18시)

전형 방법 1차-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면접

문의 031-850-1426 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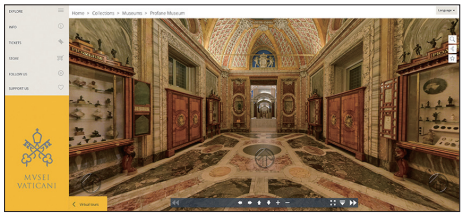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자격증사본 (해당자)

우편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마감 8/6(금), 우편은 8/6 소인까지

추천 온라인 컨텐츠 열 두 번째 (온라인 여름 피정)

많은 유튜브 채널이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의 교리, 전례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훌륭한 내용이지만 성경이나 교리(사회교리 포함)의 경우는 꼭 교회 공식 채널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 채널의 경우 개인 의견이나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에서 성화 감상을

미켈란젤로의 작품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가 한 공간에 있는 곳,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을 나홀로 찬찬히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고개를 돌리듯 화면을 돌리며 12,000여 점의 성화로 그려낸 성경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KBS 기후변화 특집–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다

KBS 기후변화 특집 〈지구, 우리 모두의 집-2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방송한 영상입니다.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이어 읽으며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마음에 남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향기 품은 생활 성가– ep.8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교구 생활성가팀 〈희주다〉와 함께 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묵상글을 나누고 아름다운 성가를 함께 불러봅니다. 이번 편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더해집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CPBC TV 토크콘서트 For You – 달팽이처럼 천천히 살아볼까요

우리 교구 최대환 신부님과 나누는 느림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있어 영상으로도 피정의 시간이 됩니다. 속도와 다재다능함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며 눈앞에 있는 일을 해치우기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추어 '느림과 쉼의 시간'을 생활 속에 배치하도록 초대합니다.

미사 · 피정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순례, 추자도성지, 미사(성무일도)
일정: 8/30~9/2, 9/6~9, 9/12~15, 9/25~28, 10/2~5, 10/15~18, 11/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 김대건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비대면 피정

주제: 김대건 신부님께 보내는 200년만의 답장
신청: 2021년 8월부터 신청 가능
대상: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문의: 031-840-07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hanmaum84.com 참조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수녀)

1박 2일: 8/21(토)~22(일), 9/11(토)~12(일)
3박 4일: 8/26(목)~29(일), 10/1(금)~4(월)
8박 9일: 9/1(수)~9(목), 10/12(화)~20(수)
40일: 9/24(금)~11/2(화)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회복
장소: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 36만 원 (효소비 포함) 일시: 8/13~16, 8/20~23, 9/3~6, 9/24~27, 10/8~11, 10/22~25
문의: 글라라 010-9363-7784

마재성지 수험생과 가정을 위한미사

기간: 8/10~11/18 (100일)
접수: 8/9 까지(원하는 날짜별 접수도 가능)
문의: 마재 성지 031-576-5412

교육 · 모집 ▶▶

갈곡리 성당 사무직원 모집

모집인원: 사무직원 1명
대상: 세례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사무행정 / 회계업무 / PC가능(한글/엑셀/PPT) 사용 가능자 / 지원 마감: 8/13 우체국 소인까지(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466번길 25 갈곡리 성당 (우:10807)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 교구 홈페이지 참고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현장상담원 모집(1명)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산하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현장상담원 모집(1명)
자격: 대학을 졸업한 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
모집기간: 채용시 까지
http://www.ggbb1366.or.kr 채용공고문 참조 (자사양식으로 지원)
문의: 031-873-1397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기간: 8/23~22년 3월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 http://seoultcpc.catholic.or.kr 교육신청 / 문의: 02-727-2126
tcpc@seoul.catholic.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 자폐성 발달 장애인 (경기도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가능,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pjdoran

효소 단식 영성 피정

피정지도신부: 김경진 베드로(떼제미사)
일시: 8/7~8, 10/2~3(1박2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회비: 1인 1실 10만 원)
문의: 010-3548-2433(선착순 20명)

포천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 구인 모집

구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문의: 031-536-8998
메일: mpotter1877@naver.com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가을학기 모집

접수 및 등록: 8/2(월)~8/27(토)까지
3개월 수업(9월~11월)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 / 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앙상블(남·여 그레고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site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 www.karf.co.kr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09시~17시) / 야간진료(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성소 모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의정부가르멜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여성		010-8078-7016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매월 둘째(주일) 10:30	서울 성북동 수도원(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모임)	010-6608-321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8/8(주일) 14시(해외선교)	서울시 보문로 27길 20	010-9353-1773
성심수녀회	8/21(토) 14시~17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복음화 과정안에서의 교리교육 ②
– 첫 선포인 케리그마(Kerygma) I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화의 주체인 우리가 '선교하는 제자'의 사명에 응답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는 말씀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교육하여야 하는 사명과 신앙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하는 사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깔린 근본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되새겨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9-12)

우선, 교리교육은 예수님의 첫 선포를 이어갈 우리의 사명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성숙'의 도구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리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 인간을 '성숙' 시켜 말씀을 전해 듣는 이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포(케리그마)는 교리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근본 핵심입니다.

"우리는 교리교육에서 더욱 '탄탄하다'고 내세우는 교육을 위하여 케리그마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리그마보다 더 탄탄하고 깊이 있고 확실하고 의미 있고 지혜로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은 무엇보다도 케리그마의 심화입니다." (「복음의 기쁨」 165항)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선포(케리그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앙 교육과 성숙의 방법과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화에 봉사하는 교리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핵심적으로 선포하는 케리그마적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도덕적, 종교적 의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선포(케리그마)는 하느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기 위해 그 내용을 "철학적인 몇 가지 교리로 축소 시키지"(「복음의 기쁨」 165항) 않아야 합니다.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_ 문산 주임